사조위, 원인조사 결과 못 내고 경찰은 1년 다 돼 압수수색

독립성 논란에 사조위 활동 중단…경찰, 전문지식 없어 감정 못해
공항서 버텨온 유가족 "수사 의지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어" 분통

25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파손된 둔덕 등의 시설물 잔해들이 사고 당시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진상규명 제자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이 되도록 공항 대합실에서 버텨온 유가족들은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왜 돌아오지 못한 건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게 묻고 또 물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고 원인 규명조차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년 다 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다가 '독립성 논란'으로 사실상 일시중지된 상태고, 경찰도 관계자 44명을 입건했을 뿐 1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풀지 못한 숙제들**=25일 현재까지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조류충돌'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는가 여부다. 사조위는 지난 1월 7일 사고기 엔진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을 확인해 조류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또 사고 직전 기장이 조난 신호를 보내면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언급한 점, 1차 착륙 시도 실패 뒤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이 공항 CCTV영상으로 남은 점 등도 조류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공항 측에서 조류충돌 방지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관제가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엔진 등 기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조종사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사조위는 지난 7월 엔진 제조사 측 분석 결과를 들어 "결함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조종사가 조류충돌로 심각하게 훼손된 오른쪽 엔진이 아니라 왼쪽 엔진을 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사조위는 이 같은 엔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유가족 반발로 무산됐다.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가려내야 할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함에도 콘크리트 둔덕으로 조성돼 항공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국토부에 시정 권고하기도 했다.

◇**진상 조사는 하세월**=사조위를 통한 원인규명 진상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사조위는 지난 1년 동안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다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새로 구성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사조위는 출범 초기부터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무안공항 건설·관리 책임자인 국토부의 산하 기관으로 꾸리는 바람에 '셀프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독립성 논란은 해소되겠으나, 새 조직을 꾸리는 절차 때문에 진상 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조위는 지난 4~5일에도 공청회 형식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가 유가족 반대로 무산됐다. 유가족들은 공청회 개최 사실을 불과 3~4일 전에 통보받았으며,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질문을 아예 받지 않을 예정이었다며 불합리한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경찰 수사는 무능**=경찰은 지금까지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자 4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가족이 고소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 22명에 이어 경찰이 자체 인지해 입건한 28명 등이다. 이 중 중복된 인원은 6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제사 2명, 조류충돌 방지 업무 관계자 3명, 2007년 공항 개항 당시 공사 및 허가 관계자 8명, 2023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및 허가 관련 15명 등이다.

관련자 70여명을 상대로 107회 조사를 벌였으며, 무안공항, 제주항공, 국토부 등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 당일 CCTV부터 공사 관련 서류, 관련 전자파일 등 압수물품은 총 3084점이며 1만 5000여쪽의 수사기록이 만들어졌다.

다만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추가 입건을 반복하더니, 지난 16일에는 뒤늦게 세종시, 김포시에 있는 사조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일찍 진행해 현물을 확보하더라도, 경찰에 항공기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 자체 감정을 하기 어려우니 사조위가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성과를 압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참사 1년이 다되도록 사건에 대한 전문적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찰이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자들의 책임 경중·처벌 수위, 혐의 적용 여부조차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고재승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만 기다리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년이 지났어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회 국조특위, 1월 '진상규명의 달' 선포…사고 원인 원점서 재조사

의원 18명 구성…1월22일 청문회
로컬라이저·기체결함·은폐의혹 등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 증인 채택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1년 만에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의 시간'을 선언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026년 1월을 '진상규명의 달'로 규정하고 사고 원인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기 위한 강행군에 돌입했다.

이양수 위원장을 필두로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활동을 개시하며, 참사 1년이 지나도록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과 면담하는 것으로 첫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국조특위의 향후 일정은 매우 빡빡하다.

30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자료 수집과 사전 조사를 거친 뒤, 1월 15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등 주요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조사의 하이라이트는 1월 22일 열리는 청문회다. 국조특위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강희업 제2차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석에 세운다. 또한 참사 당시의 대응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지원단장과 사조위의 사무국장 및 조사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강도 높은 신문을 예고했다.

국조특위가 집중할 3대 쟁점은 구체적이다. 첫째,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 로컬라이저(계기착륙시설) 둔덕의 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둘째,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는지와 기체 엔진 결함 가능성이다. 셋째,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 규명이다.

국조특위는 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참사 수습 참여 과학수사관 17% 심각한 PTSD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 참여했던 과학수사관 17%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한 '대형 재난 사고에 투입된 과학수사관의 심리적 응급처치 프로토콜' 보고서를 보면,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다른 현장 수사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였다.

이 보고서에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9~10월 전국 과학수사관 7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가 담겼다. 이 중 제주항공 참사에 파견된 수사관은 224명이었다.

제주항공 참사 업무에 투입된 수사관 중 임상적 수준의 PTSD를 겪고 있는 비율은 17.6%(39명)였다. 이는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되지 않은 과학수사관들의 PTSD 비율(12.5%)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

또 참사 수습 업무 참여자 중 46.4%(120명)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는 사건 직후~2주 이내 시작된 경우가 32.6%(73명)로 가장 많고, 2주~1개월 내가 8.5%(19명)로 뒤따랐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사관 중 우울, 불안, 자살 위험, 알코올 중독 등 임상적 수준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1개 이상 경험하는 고위험군도 24.0%로 집계됐다.

참사 수습 업무별로 주관적 고통감을 1~4점의 리커트 척도(높을 수록 고통스러움을 의미)로 나타낸 결과, 유족 시신 인도 작업이 2.62점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신재구성(2.38점), 유족 시료 채취(2.22점), 시신 분류(2.16점), 현장 수습(2.09점) 등 순서로 고통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강동레미콘에이치에스(이하"갑")와 주식회사 강동레미콘제이에이치(이하"을"), 주식회사 강동리츠(이하"병")은 2025. 12. 24. 각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합병방법 : "갑"은 "을"과"병"을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과 "병"은 해산한다.
2.주식배정 :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액면가10,000원)에 대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0.574562주(액면가10,000원)를 배정하고, "병"의 기명식 보통주식0.254456주(액면가10,000원)를 배정하고 각 교부하기로 한다.
3.합병기일 : 2026년 2월 1일

2025년 12월 26일

주식회사 강동레미콘제이에이치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500-23
대표이사 이훈창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강동레미콘에이치에스(이하"갑")와 주식회사 강동레미콘제이에이치(이하"을"), 주식회사 강동리츠(이하"병")은 2025. 12. 24. 각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합병방법 : "갑"은 "을"과"병"을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과 "병"은 해산한다.
2.주식배정 :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액면가10,000원)에 대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0.574562주(액면가10,000원)를 배정하고, "병"의 기명식 보통주식0.254456주(액면가10,000원)를 배정하고 각 교부하기로 한다.
3.합병기일 : 2026년 2월 1일

2025년 12월 26일

주식회사 강동리츠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정곡로 140-23
대표이사 이훈창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법인은 2025년 12월 19일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12월 22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민법 제88조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 신고마감일 2026. 2. 27.

2025년 12월 26일

사단법인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59, 3층 (치평동, 법무법인 지산)
청산인 정 인 성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장요한(731223-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252번길 46, 103동 1509호 (신창동, 신창지구 도시공사아파트)

피상속인 망 장요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4562호로 신청하여 2025년 12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2월 26일

• 상속인 : 장원빈(010113-3XXXXXX)
• 신고기간 : 2025. 12. 26. ~ 2026. 3. 6.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장원빈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9-26, 202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의 명칭 : 고흥솔라 오마8차 태양광발전소 사업
2. 발전소의 위치 : 전남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 2884-3외 25필지 일대
3. 발전소의 면적 : 124,492.7㎡
4.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 약13MW
- 사업 개시 예정일 : 2029년 01월 30일
- 사업 운영 기간 : 2029년 02월 ~ 2049년 02월 (20년간)
5. 지분구조 : 에퀴스 에너지 코리아2 (지분소유 100%)
6.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 선선규
7.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12월 26일 ~ 2026년 01월 01일 (7일간)
8. 의견제출 방법 : 전화 : 02-6285-3980, FAX : 02-6285-3988, E-mail : jinwoo.oh@equis.com
9. 신청사업 정보 열람장소
- 장소 : 고흥군청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주소 : 전남 고흥군 고흥군청로1 고흥군청
- 전화 : 061-830-5317

2025년 12월 26일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